

佛語佛文學科의 현황과 개선 방안

金 治 洙
(梨花女大 佛語佛文學科)

1. 머리말

이 땅에 불어불문학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해방 후였다. 그후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전국의 60여 개 대학에 불어불문학과가 세워졌고 여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만 5천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이 분야의 전임 교수도 2백 5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어불문학과 교육 과제를 반성해 본다는 것은 어찌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전국 각 대학의 불어불문학과 양적 팽창은 질적인 반성이 없는 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의형적 통계 수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의 불어불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평균 250명 내외이고 재직중인 교수가 평균 4명 안팎이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6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불어불문학과 현황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열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그렇다고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가령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6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학이 전문교육 기관임을 고려할 때 상상하기 힘든 수자이다. 이러한 수자는 오늘의 일부 불어불문학과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선결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2. 教育 目標

불어불문학과 교육 목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불어불문학과 교육은 서양 문화로서의 프랑스 문학과 언어에 대한 비교적 깊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히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개방 사회로의 한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지식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타국의 이질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와 수용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더 바람직하게 이해하며 나아가서 한국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인의 배출을 목표로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불어불문학이라고 하는 한정되고 전문적인 교육·연구 영역의 직접적인 목표라는 차원이 고려될 수 있다. 여기에는 ① 외국어로서의 불어의 해독 및 사용 능력을 과학적인 언어 교육의 방법에 입각하여 훈련시킴으로써 앞에서 규정한 지식인과 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직업인을 배출한다. ② 불문학·불어학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연구 영역에서 주요 이론과 방법론을 습득시키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학술적 문제를 분석·검토하고 해결하는 훈련을 쌓게 한다는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문학의 경우 서구의 문학 가운데 하나이자 인류 공동의 문화 유산의 일부로서 불문학의 주된 특징과 불문학 사상의 주요한 역사적 사실과 흐름을 이해시키며, 불문학 작품을 자료로 문학 텍스트의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학습시킨다. 이를 통해 인간 경험의 예술적 표상으로서 문학의 본질과 보편적 성격의 이해에 접근하도록 한다. 또한 불어학의 경우 불어학의 주요 연구 영역을 소개하고 이들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현대 언어학 이론과 방법론을 정리하며 또한 이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불어의 언어학적 기술의 성과를 학습시킨다. 궁극적으로는 불어를 통

해 드러나는 보편적·개별적 언어 현상의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킨다.

3. 敎科課程의 分析과 改善 方向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불어불문학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음 <표 1>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8개 대학의 교과목 일람표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과목의 명칭은 세기별·장르별·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교과과정 자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8개 대학의 교과목 일람표

교과목	A대		B대		C대		D대		E대		F대		G대		H대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불 문 법	*1-1		*2-1	*2-2	*2-1	*2-2			*2-2		*1-2	*2-1	*2-1	*2-2		*2-1
불 산 문 강 독	1-2		*3-1		2-1	2-2			1-2							*1-1
기 초(종합)불 어			*1-1	*1-2	*1-1	*1-2			*2-1							
불 어 연 습			1-1	1-2			2-2						*1-1	*1-2	*1-1	*1-2
시 청 각 불 어									*1-1	*1-2						
불 어 음 성 학	*3-2						*2-1				1-1					
불 어 작 문	*2-1		*2-2		3-1	3-2	3-1	3-2	2-1	2-2	2-2	3-2				2-2
불 문 학 개 론	*2-1	*2-2	*2-1						3-1	4-1			*3-1	*3-2	*1-1	*1-2
불 어 학 개 론	*2-2		*3-2		4-1						2-2		3-2		3-1	3-2
불 문 학 사			*2-2		3-2		2-1		*2-1	*2-2	*2-1		*2-2			
불 어 학 사									3-2	4-2	*3-2					4-2
실 용 불 어	2-2				4-2											
시 사 불 어	2-1	2-2			4-1		4-2				3-2				3-1	3-2
불 단 편 강 독			2-1		2-1	2-2	3-1		2-1	2-2	2-2		2-2		2-1	2-1
불 소 설 강 독			2-2										2-1			1-2
불 어 회 화			2-1	2-2			3-1	3-2			2-1	3-1	*1-1	*1-2		
불 회 곡 강 독									2-2							
불 어 통 사 론	*4-1						*3-2		3-2	4-2	*2-2		3-1			
19 세 기 불 문 학			3-1	3-2	*4-2						*2-2					
고 급 불 문 법	3-2		4-1		3-1	3-2	4-1		3-1	3-2	3-1				3-1	3-2
18 세 기 불 문 학	*3-1		4-1		*4-1				3-2	4-2	*3-2		4-2			
19 세 기 불 시	*3-1		3-2		3-2		*3-2		*3-1	*4-1	3-1		3-2		3-1	3-2
19 세 기 불 소 설	*3-1				3-1		*3-1		*3-1	*3-2			3-1		3-1	3-2
17 세 기 불 문 학	*4-1		2-2		4-1	4-2	*4-2				*4-1	4-2	4-2		4-1	4-2
20 세 기 불 소 설	3-1				4-1	4-2	*4-1				4-1		4-1		4-1	4-2
19 세 기 불 회 곡													3-2		3-2	

교과목	대학							
	A대	B대	C대	D대	E대	F대	G대	H대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학년-학기
20세기 불회곡		3-1	4-2	3-1		3-1	3-1	
20세기 불시		3-1	4-1	*4-2		3-2		4-1
근대 불평론	4-1		3-1					
현대 불핑론	4-2	4-2	3-2	4-1		4-1	4-2	4-2
의미론	4-2							
불문학연습							4-1	2-2
불어학연습		4-1	*3-1 *3-2			4-2		4-1
불작가론	3-2	3-2	4-2				4-1	
불어학특강	4-2	4-2				4-1		4-2
불문체론				4-2		4-1		
불수필				4-1				
20세기 불문학	4-1		3-1			3-1		2-2
불시특강	4-1					4-1		
불문학특강				3-2				
불어음운론					3-1			
중급 불어연습								*2-1
고급 불어연습								*2-2
근대 불문학강독								2-1
불문화사							2-2	2-1

*표는 필수 과목임

다. 그러나 외국의 교과과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과과정의 특성이 드러난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이 일본의 대학보다는 더 보편적인 교과과정을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과과정이 외형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의 그것보다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분류법을 선택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불어불문학 분야에서 대학교육의 일관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이들 교과과정이 각 대학의 특수성에 맞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통일을 기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들 교과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문제를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개설 과목이 수강 대상 학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있다. 가령 <불어학개론>이 A대학에서는 2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반면에 G대학에서는 3학년 1학기, C대학에서는 4학년 1학기, E대학에서는 3학년 1학기과 4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고, D대학의 경우

개설되어 있지 않다. 또 <시사불어>는 A대학에서는 2학년 1·2학기, F대학에서는 3학년 2학기, C대학에서는 4학년 1학기, D대학에서는 4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다. 또 <17세기 고전주의 불문학>은 A대학, C대학, F대학, H대학에서는 4학년 1학기, B대학에서는 2학년 2학기에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대학의 교육 목표와 내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7세기 고전극>의 경우 작시법을 알아야 하고 불어의 옛날 표현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 시대와 거리가 있는 과거의 문학은 문학에 대한 소양을 쌓은 다음이 아니면 난해하기 때문에 저학년의 강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될 수 있다.

둘째, 각 대학마다 기본적인 과목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불어음성학>의 경우 5개 대학에서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 <수필>과 <회곡 강독>은 각각 한 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다. 또 <문체론>이나 <의미론> 강의도 1~2개 대학에만 개설되고 있다.

셋째, 문학 강의와 어학 강의의 균형 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불어학의 교과과정이 불문학의 교과과정과 독립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양적 열세에 놓여 있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불어학의 교과과정이 불어불문학과에서 불문학의 교과과정과 함께 실시되고 있지만 그 비율이 1:2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학과 관련된 과목은 ① 어학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본 과목과 실용 과목, ② 보다 학문적인 성격을 지닌 불어학 계통의 전공 과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의 경우는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프랑스인 교수가 직접 담당하게 되어 상당한 내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②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D대학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어학개론>을 개설하지 않은 반면에 <불어음성학>, <불어학연습>, <불어문체론> 등 보다 전문적인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 E대학의 경우 어학 강좌가 <불어학개론>, <불어통사론>, <불어학사> 등 세 강좌만 개설되고 있어서 문학 강좌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네째, 저학년과 고학년의 강좌 사이에 연계성의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교과과정이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에 선수 과목 제도를 도입해서 강좌 사이의 연계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과정으로부터 구체적·특수적 과정으로 점진적인 이동을 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필수 과목의 지정이 학교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이 각 대학의 특색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설적인 강좌에 국한되어 있으면서도 대학에 따라서는 10 과목에 이른다는 것은 지나친 구속으로 보인다. 선수 과목의 제도가 있는 만큼 필수 과목의 과다한 지정은 학생의 전공이나 취미를 무시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교육이 되기 쉽다. 학생의 수준이나 학교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필수 과목

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는 있으나 되도록이면 선택적인 의미가 강조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3,4학년에서의 필수 과목의 지정은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하여 피해야 할 일이다.

여섯째, <연습> 시간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강좌가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고학년에 세미나 형식의 강좌를 통해 그동안 배우고 생각한 것을 학생들 스스로 발표하고 이를 교수가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좌의 학급 단위가 3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최근에 발달한 인접 학문—언어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사회학—등의 성과를 문학 이론에 적용하여 텍스트의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교과목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학부 수준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교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을 모르는 한 어느 분야의 책은 읽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프랑스의 어문학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아닌 불어권의 어문학, 다시 말하면 벨기에나 퀘벡과 아프리카 등 불어권의 어문학에 관한 관심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제 3세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과 상응하는 변화를 교과과정이 수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시도한 교과과정의 분석과 제언은 그 자체로서 불어불문학과의 교육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현행 교과과정의 분석을 통해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싶을 따름이다.

4. 發展을 위하여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과과정은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지침으로서 교육과정의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불어불문학과의 교육 목표의 성취는 교육 내용에 대한 올바른 지침 없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으나 또한 바람직한 교과과정의

편성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교육 상황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와 관련된 여건이 상호 작용하는 바탕에서 교육의 질적·제도적 발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불어불문학과와 교과과정의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나아가서 불어불문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敎科課程의 效果的 運營

첫째, 교양 과목의 이수 시기를 재조정하여 전 학년으로 분산·조정하고 1 학년 과정에서 입문적 성격의 전공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입학초부터 전공 학문 세계에 대한 이해의 길을 열어 전공 교육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학기당 개설 학점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학기당 2~4 강좌의 개설은 학생의 선택의 폭이 좁고 강좌당 과다한 수강생이 몰려 전공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없게 만들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학문적 교류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셋째, 교양 과목의 이수 하한선을 완화하고 전공 과목의 이수 학점을 최소 60 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세계적 수준에서 뒤떨어져 있는 어문학 교육의 현실을 바로 잡기가 힘들다고 생각된다. 넷째, 기초 언어의 강의는 학급 규모를 20명 정도로 제한하고 연습이나 세미나 형식의 강좌는 30명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교과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교과 과정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용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2) 人的 與件의 改善

대학에서의 인적 여건의 개선에서 첫번째 문제는 교수 1인당 책임 시간의 하향 문제이다. 새로운 학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취적 학자로서 자신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당 9시간으로 되어 있는 각 교수의 책임 시간만은 최소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고 나아가서는 주당 6시간으로 하향 설정되는 것이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 학부의 전공과정 교육만을 문

제로 삼을 때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1:15의 비율로 교수 요원의 충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 불어불문학과 발전을 위한 또하나의 문제는 기존 교수의 재교육 연수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다. 모든 외국어문학 교수에게 요구되는 일이지는 않지만, 외국어의 연구 출장을 통해 새로운 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며 외국의 학자나 교육 담당자와 교류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불어불문학의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낯은 강의의 되풀이가 아니라 새로운 강의의 끊임없는 모색으로 교육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7년마다 한번씩 허용하는 1년의 유급 휴직 제도를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고 가능하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② 방학 기간중 자료 조사와 정보 수집을 위해 단기간 연구 출장을 제도화한다. 셋째, 학과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은 교수들의 강의와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 그리고 학과 사무의 처리를 위한 행정 요원을 포함한다. 각 학과에는 사무 직원 1인, 조교 1인, 각 교수마다 조교 1인의 비율로 석·박사과정 재학중인 연구 조교가 필요하다. 현재 교수 1인당 60여 명의 학생이라는 비율은 과제를 처리하는 시간의 소모 때문에 연구와 수업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교 제도의 확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3) 敎授 方法

교수 방법은 불어불문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공 교육의 하위 영역인 ① 불어 교육, ② 불문학 교육, ③ 불어학 교육 등에 따라서 전통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의 이론적·실제적 논의를 충분히 수용한 다음 적절하게 교안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불어불문학과와 궁극적인 교육 목표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면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① 민주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교수상을 정립하는 교육 방법을 추구한다. 이는 지식과 교권만을 앞세우지 않고 학문적 훈련의 엄격성과 엄정성을 지키면서 학습과정을 통해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인격을 개발하고 사회적 성취를 도와주는 교수가 되도록 교육 행위를 주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전문적인 지식의 전수 교육과 문제 제기 및 해결 방안의 모색 훈련을 통한 자율적인 학습을 적절히 배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③ 인접 학문과의 교류와 연계 그리고 협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소양을 토대로 하고 학제적 시야를 확대하는 교수 방법을 추구한다.

④ 피교육자의 욕구와 반응을 가능한한 참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과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수 방법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 활동의 일부인 피학습자의 평가의 경우도 학생들의 학구열을 북돋아 주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강의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절차(내용상으로나 방법상으로)가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 국제적 교류가 빈번하고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해외 연수를 권장하고,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4) 教育 施設

우리나라 대학에서 불어불문학과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건 가운데 하나가 교육 시설이다.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은 한국에서의 학문적인 역사가 짧은 불어불문학과와 경우 아직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시급히 갖추어져야 한다.

① 교수 연구실—6평 정도의 1인 1실 원칙으로 교수 연구실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실에는 난방 시설, 책상, 서가, 전화 등 기본적인 시설 이외에도 첩판, 새면대, 개인용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2~3인이 연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겨울철에 난방이 되지 않아서 연구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② 학과 사무실—각 과에는 학과장실과는 별

도로 학과 사무실이 필요하다. 학과 사무실에는 복사기, 타자기, 워드 프로세서가 기본적인 사무 기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과장실—학과 교수회의, 학생 면담 이외에도 학과 사무 처리를 위한 학과장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다.

④ 합동 연구실—석사과정 학생과 학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합동 연구실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학과 전체를 공부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선·후배 사이에 학문적 유대감을 갖게 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이다.

⑤ 박사과정 학생 전용 연구실—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전용 연구실은 교수 연구실과 함께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⑥ 학과 도서실—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참고 문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학과 도서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중앙도서관의 도서를 학과 도서실에 대출·비치할 수 있어야 하며, 학과별 도서 구입 예산이 최소한 1년에 500만 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정기 간행물(예를 들면 불어학, 불문학, 불어교육학 분야의 학술지와 기타)은 국내·외의 15종 이상을 구독해야 하고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 1종, 일간 신문 1종도 반드시 구독해야 한다.

⑦ 언어 실습실—각 학년별 정원에 해당하는 수자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언어 실습실이 절대 필요하다. 재래식 시청각 기자재는 물론이거니와 최신식 시설의 V.T.R. 설치와 교육에 필요한 각종 테이프의 준비가 요청된다. 이와 병행해서 학교 전체의 차원에서 음향 도서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언어 실습실과 연계 관계를 맺게 한다.

5. 結 論

이상에서 살펴 본 불어불문학과와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원칙적이고 현실적인 필요 조건이지만 그것으로서 발전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어불문학과와 발전이 교육 내용을 충실히 하고 교육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

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 대학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고 사회에 취업할 수 있는 수자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이라는 이유로 전공자의 취업 문제가 도외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어불문학과는 한편으로 교육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 앞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통해 졸업 후 취업의 길을 열어주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 내용의 다양화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불문학이나 불어학의 전공자는 그 수자를 제한하고(가령 학점의 취득 상황에 따라서) 그밖의 학생들은 통

역이나 실용적인 불어교육을 전공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창작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 교육보다 창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아야 한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의 취업의 길이 모색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불어불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육 내용이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어불문학과와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졸업생들을 실업자로 남아 있게 하는 한 불어불문학과와 장래는 어두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부 대학에서 '프랑스학과'라든가 '동시통역대학'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학과의 확대는 현재 많은 불어불문학과 지망생들에게 단순히 불문학이나 불어학만을 전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어불문학과 교과과정도 보다 실용적인 강좌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